

대체복무 입법등 논란확산 조짐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판결’ 의미와 불교계 반응

“유죄 당연” - “감옥외 대안 마련하라” 반응 제각각 소송단체 다음달 현재 판결에 희망...UN 인권위에 제소계획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7월 15일 유죄를 확정, 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이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문제와 관련해 다음달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이 아직 남아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석 대법관)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1심과 2심에 징역1년 6월을 선고 받은 최 모씨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불응이 병역법에서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의미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심·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이런 한계 속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관들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판결 이후 관련 종교·시민사회단체는 7월 1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즉각 병역법 개정과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인사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관한 국민기본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관련 단체들은 다음달 최종 결론이 나올 현재 판결을 기다린 후 현재에서도 합한 결정이 나면 유엔인권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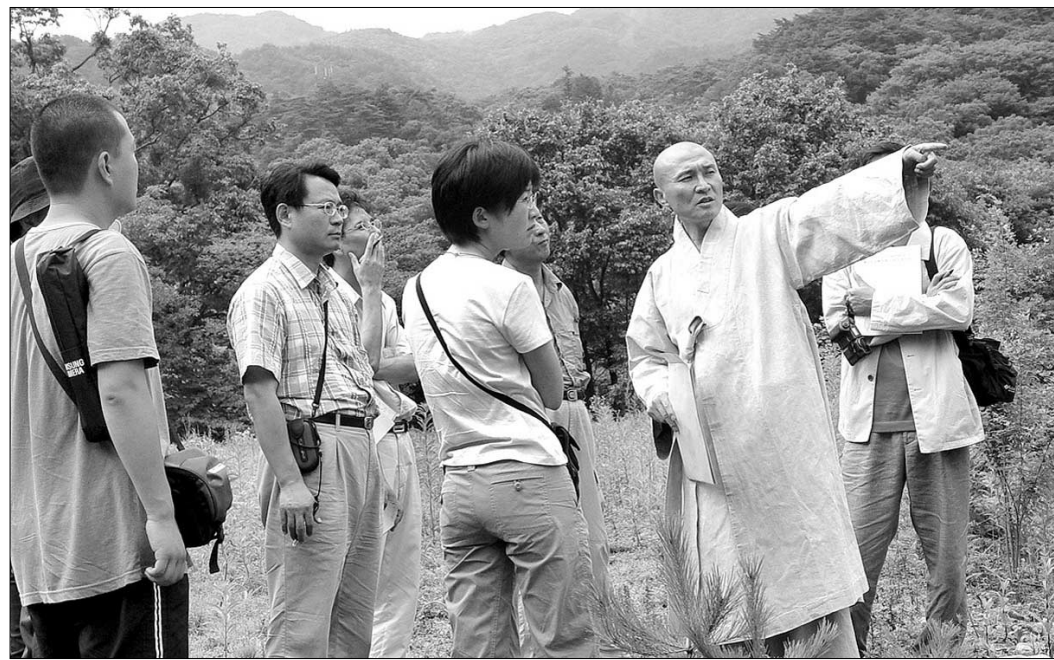
■불교계 반응

2001년 12월 오대산정토회 활동가·29 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선언을 한 뒤 자신의 종교와 이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끊이지 않고 확산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오대산 씨는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낫지만 대법관 가운데 6명이

제도적으로는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주장 했다. 이는 병역거부자가 감옥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현실적 모순을 인정한 결과”라며 국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불협 의장 법타 스님도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병역거부자의 실재를 인정하고 처벌위주의 대응이 아니라 이들이 인간으로서 사회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 군복교위원회 사무국장 전창을 법사는 “현실적으로 남북이 분단돼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권 이전에 사회공동체의 근간으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현역 8군단 군종김종봉 법사도 “한국불교에 사명대사와 같은 의병승이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반드시 불교적 이념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밝히 이번 판결에 대한 불교계의 다양한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해인사대취유’ 위원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은 7월15일 신행문화도량 건립 예정지인 구 해인초등학교 등을 둘러보고 해인사로부터 불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진=배지선 기자

해인사 내원암 불사 ‘없던일’로

방장 법전스님 전면 중단 지시

해인사가 내원암 불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해인 총림 방장 법전 스님은 7월 16일 주지 세민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에게 “내원암 불사를 단순하게 할 삼신암 복원불사로 생각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불사를) 전면 중지하고 두 번 다시 내원암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와 환경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내원암 불사는 완전히 중단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법전 스님은 그러나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불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힘을 모을 수 있는 불사가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16개 불교 환경·신행단체들이 7월 7일 구성된 ‘해인사 관광도량화 중단과 바른 불사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등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7월 15일 해인사를 방문해 불사 예정지에서 재무국장 현종 스님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김동필(말양대 조경학과) 교수는 “해인사 불사 문제는 다른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며 “공식적으로 해인사 불사가 철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불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 불사 후 관리방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자들은 7월 14일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해인사의 대형도량 건립계획 백지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부결 △환경부 공원위원회의 공원 내 행위 허가 및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배지선 기자

‘예배 거부 제적’ 인권위에 진정

강제적인 예배를 거부하다 제적된 강익석(18) 군이 7월 13일 학교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강 군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제적인 종교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강 군과 대광고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는지의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강 군을 비롯해 인터넷 카페 종교사랑(cafe.daum.net/wdhrytkfkd)은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청소년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로이(Rights Of Youth)와 함께하는 청소년문화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인권선언문’을 통해 “교내에서의 특정한 종교의식 강요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가 되고 있다”며 “강제적인 종교의식을 거부할 권리와 신앙 불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박봉영 기자

달마마라톤대회 열린다

서울광역시도회(www.dharma-marathon.com)가 9월 12일 여의도한강시민공원에서 ‘제1회 달마마라톤대회 및 행복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마라톤대회와 걷기명상, 법교 공연 및 선무도 시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다양한 행복문화축제로 꾸며진다.

마라톤행사는 하프코스과 10km, 5km로 나뉘어 진행된다. 완주자에게는 완주메달과 함께 기록증과 기념품 등이 제공되며 10km 마라톤 완주자 중 대회 평균기록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참가자에게는 특별상이 지급된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7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02)733-0272 김은경 기자

비키니 수영복에 부처님이?

금발 머리를 한 백인 여자가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터질 듯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 수영복 가슴에는 부처님이 합장을 하고 앉아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수영복 하의에도 부처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여성 속옷 업체인 빅토

다’며 “특히 수영복 브랜드 판촉을 위해 영국, 미국, 유럽 국가의 상징과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제야시리 대사는 스리랑카 외무부에서 해외 공관을 통해 △관련당국에 공식적인 건의 △상품 출처 지적 △당해 국가 불교기

주한 스리랑카 대사 조계종 방문 불상 등 상업화 반대 협력 요청

리아즈 시크리트의 또 다른 브랜드인 ‘탱키나’가 선보인 수영복이다.

주한 스리랑카 비제야시리 대사는 7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 부처님 상화를 상업화하는 문제에 대해 불교교직원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비제야시리 대사는 “상업용 상품에 부처님의 상화를 묘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

고 있다”며 “특히 수영복 브랜드 판촉을 위해 영국, 미국, 유럽 국가의 상징과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제야시리 대사는 스리랑카 외무부에서 해외 공관을 통해 △관련당국에 공식적인 건의 △상품 출처 지적 △당해 국가 불교기

남동우 기자

인권 복지단체 ‘작은손길’

창립 발기인 총회 열어

우리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할 인권 복지단체 ‘작은손길’이 7월 16일 서울 민회교공원에서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작은손길’은 그동안 독자적인 활동을 했던 김포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홀리스의 친구들, 아시아 인권문화센터가 연대해 가난한 이웃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작은손길’은 앞으로 노숙자, 탈

북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무의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재할 및 자활 지원, 외국인 노동자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 강유신 기자

前 성원토건 회장 부인 불교계에 선처 호소

공적자금 유용혐의로 구속된 전 성원토건 김성필 회장 부인 하혜자(법명 혜광월) 씨가 불교계의 도움을 호소했다.

하 씨는 최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회장이 기업을 잘못 운영해 공적자금을 잘못 관리한 책임은 있지만 각종 불

사에 도움을 준 행위까지 함께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문경 불암사, 양산 통도사, 부산 범어사 불사 등을 지원해왔다고 소개했다.

호화주택으로 보도된 서울 성북동 저택과 관련 “불사 목적으로 94년경에 구입해 성원토건이 부도나기 훨씬 전 통도사에 기증한 사찰”이라며 “홀버나 해외 명품 구입, 차량 4대 소유 등은 보도된 것과 사실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 씨는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된 원형 스님에 대해서도 “자기 욕심은 전혀 챙기지 않고 남을 돕고 종단을 위해서 일해 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동우 기자

오대산 월정사 불교대학 제 1기생 모집

선남자야, 누가 가장 높고 착한 이인가? 먼저 부처님과 법을 믿어야 하며,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배운 대로 행하여야 하며, 자기만의 해탈을 구하지 말고 대승에 회향하여 일체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는 자이다. 《대반열반경》

월정사 불교대학은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로의 회향’이라는 불교의 시대적 요청을 실현할 신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계 대덕 스님과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수회 동참하시어 선인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1. 개 강 일 : 2004. 9. 4. 오후 2시(음력 7. 20. 토요일)
2. 교육과정 : 1년과정(2004. 9. 4 ~ 2005. 8. 31)
3. 교육시간 : 주 1회(매주 토요일 14:00 ~ 18:00 총 4시간)
4. 교 과 목

번호	분 류	교과목명	학 기	총강의시간	주당수업시간
1	선택	불교입문	1	16	2
2	필수	불교교리(근본불교)	1	16	2
3	필수	불교문화	1	16	2
4	선택	자원봉사론	1	16	2
5	필수	불교사(조계종사 포함)	1	16	2
6	선택	리더쉽과 지도자론	2	16	2
7	선택	계율론	2	16	2
8	필수	포교방법 및 상담론	2	16	2
9	선택	불교사상사	2	16	2
10	필수	선의 이해와 실참	2	16	2
11	선택	경전의 이해	2	16	2

*특강 : 청소년 포교론
불교사회복지 등

5. 수 강 료 : 연 240,000원(월 2만원, 입학금 포함, 교재대 별도) *매학기 장학금(성적우수자) 지급
6. 모집인원 : 70명(선착순)
7.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매, 사진(3×4cm) 3매
8. 원서접수 : 2004. 8. 1 ~ 8. 31
9. 문 의 처 : 오대산 월정사 중무소 ☎ 033)332-6664 ~ 5 / fax 033)332-6915, 담당 : 박재현)
10. 기 단 : 자세한 내용은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를 참조하십시오.
* 불교대학 입학생의 경우 원하신다면 ‘산사의 하루’라는 사찰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말에 가족과 함께 월정사, 상원사에서 산사의 하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불기 2548(2004)년 7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 지 퇴우 정님
불교대학학장 원행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제 1기생 모집

“이 세상에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는 불법 만나기 더욱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의 숲길로 아름다운 민족의 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 달 동안의 단기 출가자를 모집합니다. 삭발염의 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초심자(행자)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불법에 대한 신심고취는 물론, 밖으로만 치닫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삶을 돌이켜 점검해보는 일생에 있어 단 한번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일반인에게 삭발염의하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출가수행자로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도량인 단기출가학교를 열고자 하니 수회 동참하시어 겹겹이 쌓여 있는 무명 업장을 벗겨내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심신이 건강한 만 40세 이하의 일반 남녀
2. 모집인원 : 30명 이상
3. 수행기간 : 불기2548(2004). 9. 13. ~ 10. 12.(1개월)
4. 수행과정 : *수료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행차로서 등록 및 인정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시	기상 및 예불
5시	좌선, 원각경 독송, 백팔대합회
6시 30분	아침 발우공양
7시	운력 및 전나무 숲길 자연관찰
8시	좌 선
9시	교 육
10시	소일 및 사시예불
11시 30분	법 공 양
12시~14시	포 행
14시	보궁합배
15시	좌 선 특 강 산 행
16시	포 행 좌 선
17시 30분	소일별 운력
18시 30분	저녁 발우공양
19시	저녁예불 및 기도(초발심자경문 독송)
20시	교 육(조림무술·태극권·요가)
21시	청규암송
22시	취 집

5. 수행경비 : 10만원
6. 신청기간 : 8월 1일 ~ 9월 4일
7. 문 의 처 : 오대산 월정사 중무소 ☎ 033)332-6664 ~ 5 / fax 033)332-6915, 담당 : 박재현)
8. 기 단 : 수행프로그램 및 자세한 내용은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를 참조하십시오.

불기 2548(2004)년 7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 지 퇴우 정님
학 교 장 원행